

## 금산사미륵전 (金山寺彌勒殿)

(국보육이호(國寶六二號))

전북 김제군 금산면 금산리(全北 金堤郡 金山面 金山里)



금산사미륵전(金山寺彌勒殿)

이 미륵전(彌勒殿)의 특색(特色)은 삼층(三層)이라는데 있다. 고래(古來)의 목조건물(木造建物)은 결구(結構)가 복잡(複雜)하여 층(層)을 높이는 매우 힘든 일이 아닐수 없다. 우리 역사상(歷史上) 다층목조건물(多層木造建物)이 운위(云謂)된 것으로는 황룡사 목조구층탑(黃龍寺 木造九層塔)이 있고 또 평양 청암리 추정 영명사 목조팔각전지(平壤 淸岩里 推定 永明寺 木造八角殿址)같은 것도 있다. 현존(現存)하는 3층 이상(以上)의 건물(建物)로는 화순 쌍봉사 대웅전(삼층)(和順 雙峰寺 大雄殿 (三層)), 보은 법주사 팔상전(오층)(報恩 法住寺 捌相殿(五層))과 같이 彌勒殿 정도가 고장이다. 이들, 특(特)히 법주사 팔상전(法住寺 捌相殿)은 우리 목조탑(木造塔)의 면모(面貌)를 나타낸 점(點)에서 특이(特異)한 존재(存在)이다. 가장 큰 집으로는 구례 화엄사 각황전(이층)(求禮 華嚴寺 覺皇殿(二層))을 들수 있고 가장 큰 3층 건물로는 이 미륵전(彌勒殿)을 들어야 할 것이다. 평면(平面)의 사변장(四邊長)이 팔상전(捌相殿)이나 쌍봉사(雙峰寺) 대웅전(大雄殿)에서는 같고, 여기서는 약간(若干)의 차(差)가 있으나 비슷하다. 그래서 외관(外觀)은 서로 비슷하며 팔상전(捌相殿)의 4층 이상(以上)을 가리고 보면 이 미륵전(彌勒殿)과 체감률(遞減率)이 거의 같고 외관(外觀)도 같음을 알수 있다. 창건(創建)은 자세(仔細)히 알 수 없으나 선조 31년 왜란중(宣祖31年 倭亂中)에 소실, 현 건물(燒失, 現建物)은 인조(仁祖) 13년(1635)에 재건(再建), 영조(英祖) 23년과 1926년 및 1938년에 보수(補修)한 것이다. 팔상전(捌相殿)보다 11년 뒤에 지은 것임을 알수 있다. 外3층, 내

통(內通)층, 총고(總高) 48척(尺), 높고 우람함에 각황전(覺皇殿)을 따르지는 못할 것이나, 그러면서 3층전(殿)인 점은, 많은 2층 이하(以下)의 건물군(建物群)과는 별단(別段)의 흥미(興味)를 자아낸다.